

21세기의 사카모토 료마? 정치 기업가적 리더십 하시모토 토루 리더십 연구

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2012년 11월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동아시아연구원(The East Asia Institute: EAI)은
2002년 5월 설립된 민간 연구기관입니다.

EAI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개방된 사회를 발전시킴으로써 평화로운 국제 사회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한 정책 제안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EAI는 정책 이슈에 관하여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EAI는 등록된 고유의 트레이드마크입니다.

© 2012 EAI

EAI에서 발행되는 전자출판물은
오로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또한 내용의 수정을 허용하지 않으며
온전한 형태로 사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어떠한 상업적 목적을 위한 복사와 출판은 엄격히 금지합니다.
EAI 웹사이트가 아닌 다른 곳에 본 출판물을 게시할 시에는
사전에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AI의 모든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습니다.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서울 중구 을지로 158, 909호 (을지로4가, 삼풍빌딩)
Tel. 02 2277 1683
Fax 02 2277 1684



21세기의 사카모토 료마? 정치 기업가적 리더십 하시모토 토루 리더십 연구

박명희
이화여자대학교

I. 서론

최근 몇 년간 일본은 ‘료마 열풍’이 진행 중이다. 2010년 1월 방송된 사카모토 료마전은 23.2%라는 높은 시청률을 보였으며, 사카모토 료마(坂本龍馬)를 테마로 한 여행상품이 등장하는 등 료마 비즈니스가 인기를 모으고 있다(《每日新聞》 2010/01/03). 사카모토 료마는 막부말기 토사(土佐) 출신의 탈번 무사이다. 그는 도쿠가와(德川) 시대 말기 개국을 통해 경제력을 쌓아 서구열강에 대항할 수 있는 근대국가를 만든다는 비전을 제시하고, 당시 혁명의 양대 세력인 사쓰마와 조슈의 동맹을 성사시켜, 막부를 굴복시키는 교섭력을 발휘하여 메이지 유신을 성취했다.

변혁의 상징인 료마에 대한 최근의 동경은 담보상태의 일본의 정치경제 상황을 대변한다. 1990년대 이후 급격히 하락한 경제성장률과 재정적자의 확대가 세계 제1위의 고령인구 비율과 겹쳐지면서, 현재 일본은 사회적 활력을 기대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봉착해 있다. 사회적 위기를 정치의 변화로 타개하고자 2009년 54년 만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민주당 정권 수립 3년간 3명의 수상교체가 이루어졌으며,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보여준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은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리는 계기로 작용하여, 2009년 정권교체 직후 80%를 상위하던 내각 지지율이 25%를 밑돌고 있다(《読売新聞》 2012/09 /18). 정치적 구심력 부재는 오자와 이치로(小沢一郎)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의 대거 탈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혼란상을 타개하고, 개혁을 주도한 료마를 연상시키면서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정치인이 현 오사카 시장 하시모토 토루(橋下徹)이다. 사카모토 료마는 에도가 아닌 토사번 출신의 기득권을 포기한 탈번 무사로서 기존 지배체제 밖으로부터의 변혁을 주도하였다. 하시모토 토루 역시 오사카를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기존의 정당정치 밖에서 일본의 변혁을 도모하고 있다. 하시모토는 2008년 오사카부 지사 당선 이래 오사카시 시장을 맡은 현재까지도 오사카부민, 시민의 70%이상의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다. 2012년 9월 현재 노다(野田)총리의 지지율이 25% 전후임을 고려할 때, 오사카 지역에서의 그의 입지를 가히 예상할 수 있다. 현재 오사카시 시청에는 취재기자가 50명 이상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하시모토의 트위터 팔로워는 76만명으로 일본 정치인중 가장 많다. 일본의 언론이 하시모토를 주목하는 것은 하시모토가 지역의 강력한 지지를 배경으로 중앙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1월 산케이신문(産経新聞)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일본의 리더로서 적합한 정치인 1위가 하시모토 토루 21.4%, 2위가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9.6%, 3위가 오카다 테츠야(岡田哲也)



8.3%로 지목되었다(〈産経新聞〉 2012/01 /16).

왜 일본의 여론은 하시모토에 기대하는가? 하시모토의 리더십은 기존의 일본의 정치 리더십과 어떻게 다른가? 하시모토는 가장 최근에 부각되는 일본의 정치 리더로서 그를 다룬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² 일반적으로 대중적 지지를 바탕으로 하는 정치 리더는 포퓰리스트적 특징을 통해 접근이 시도된다. 즉, 퍼포먼스에 능한 개인적 자질, 선과 악, 아군과 적군의 이원론을 전제로 한 전략 구사와 대중동원 방식 등이 그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³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개인의 정치적 자질과 수법을 강조한 나머지, 리더십이 발휘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적 요인을 경시할 수 있다. 대중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적 문제에만 집착하는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에 관심을 두게 되면서,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한계를 가진다.⁴

블론델(Jean Blondel)은 리더를 ‘환경의 죄수’로 비유하면서, 정치 리더십의 근원은 환경과 연관되어 설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에 따르면, 정치 리더십의 일차적 권위는 법적인 지위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리더를 돕거나 방해하는 제도적, 상황적 환경은 리더십의 역할 내용과 영향력의 강도를 결정하게 된다(Blondel 1987, 4-5). 터커(R.C. Tucker)는 이상적 리더십의 요소로서 진단(diagnosis), 처방(prescription), 동원(mobilization)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진단은 리더가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며, 처방은 실행과는 별개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며, 동원은 문제해결을 위해 자원을 동원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리하면, 정치적 리더십은 구조적, 정치적 상황적 요소와 상호작용하면서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고, 개혁의 목표와 정책이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여 변환을 추구하며, 그 영향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리더십의 정의는 슈페터(Joseph Schumpeter)의 창조적 파괴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되는 정치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의 논의와도 연결된다(Martin & Thomas 2011, 3). 정치 기업가는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자원동원에 의해 기존의 시장의 균형을 파괴하고, 이로써 창조적 파괴를 실현하는 인물이다. 정치 기업가는 혁신적 정책 가치와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이를 원형으로 하여 개혁적인 정책을 설계하며, 자원을 동원하고 이를 실현하고, 선거를 통해 리더의 지위를 확보한다.⁵ 킹던(John W. Kingdon)은 정책변화를 문제, 정책, 정치의 다중흐름의 접합을 통해 설명하면서 정책의 변화를 추진하는 행위자를 정책 기업가(policy entrepreneur)로 개념화한 바 있다(Kingdon 1984). 본 논문에서는 지방 중심의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전국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는 하시모토를 정치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의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하시모토 리더십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하시모토를 정치 기업가 개념을 활용하여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하시모토가 일본과 오사카가 직면한 위기에 대한 본인의 정책처방을 지속적으로 사회적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지지를 확대해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의 하시모토에 대한 접근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하시모토 리더십이 부각될 수 있는 정치적 기회구조로서 최근 일본정치 저류의 아이디어의 흐름, 문제의 흐름을 제시한다. 둘째, 구조적, 상황적 환경요인에 대한 처방으로서 하시모토의 개혁적 대안을 검토한다. 셋째, 개혁을 주도하기 위해 하시모토가 어떠한 전략을 통해서 대중동원을 시도하고 있는지 전략적 특징을 파악하도록 한다.

II. 위기의 역설과 하시모토의 등장

누가 정치적 리더로서 성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맥락은 중요한 요인이 된다. 맥락은 개인적 배경, 문화, 역사적 요인, 정치가 직면한 도전들을 포함한다(Keohane 2012, 104). 하시모토는 개인과 일본의 정치 위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의 기회를 포착하는 위기의 역설을 보여주는 정치리더이다.



2세 정치인이 주류인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하시모토는 정치가계(政治家系)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관료 출신도 아니다. 1969년 도쿄 시부야에서 태어난 하시모토는 편모가정에서 어렵게 성장했다. 초등학교 5학년때 오사카부 스이타시(吹田市)로 이주하였고, 이후 동화지구인 히가시요도가와(東淀川)에서 학창시절을 보냈다. 어릴 때 헤어진 아버지는 동화지구 출신의 야쿠자 단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アエラ〉 2011/11/14). 하시모토는 학력수준이 낮은 동화지역 학생들로서는 좀처럼 진학하기 힘든 기타노 고교(北野高校)에 입학하였고, 이어 와세다 대학을 거쳐 사법시험에 합격, 변호사가 되었다. 오사카에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던 하시모토는 우연한 기회에 오사카 지역 라디오방송에 출연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아사히 방송(朝日放送), 일본 TV 법률상담 프로그램 등에 고정 출연하게 되었다.

TV 출연 연예인으로서 인기를 더해가던 하시모토는 고가 마코토(古賀誠)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 사카이야 타이치(堺屋太一) 전 경제기획청 장관 등에 의해 발탁되어 2008년 1월 자민당, 공명당의 추천, 지지를 받아 오사카부지사선거에 출마하여 최연소 지사로서 당선되었다. 2011년 11월에는 오사카 시장에 도전하여 집권에 성공하였다. 특히, 이 선거의 경쟁상대인 히라마츠 쿠니오(平松邦夫)는 당시 현역시장으로서 자민당과 민주당, 공산당 등의 지지를 받았고, 하시모토의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반대를 표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2011년 오사카 시장선거 결과는 기성정당에 대한 오사카 시민의 불만과 하시모토에 대한 기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탈 기성정당 출신, 비2세 출신의 정치가가 기존의 지배 세력을 앞서고, 7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며, 차기 정치지도자 1위로 간주되고 있다. 여기서는 하시모토가 부각될 수 있었던 정치적 기회 구조로서 중앙과 지역정치의 문제의 흐름과 2000년대 일본 정치의 저류에 자리잡고 있는 주도적 개혁 아이디어를 정리하고자 한다.

1. 일본 정치경제 시스템의 기능부전

1990년대 초 버블경제로 시작된 일본의 경기침체는 ‘잃어버린 20년’으로 상징되는 바와 같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지 못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일본의 명목국내총생산은 479조 엔으로서 1992년 수준이다. 1989년 일본의 장기채무는 254조엔(국가 188조, 지방 161조)로 1989년 GDP규모의 61%에 해당 하는 것이었다. 2009년에는 전체 819조(국가 621조, 지방 198조)로 GDP규모의 172%에 이르렀다. 2011년의 경우, 일반회계 총지출예산은 92.4조인데, 세입은 40.9조 엔으로서 세수가 세출의 44.3%에 지나지 않고 있다(財務省 2011).

1990년대 이후 이러한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정치제도 개혁이다. 정치적 효능감 향상을 목표로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 등의 정치개혁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장기불황은 지속되었고, 관료 중심의 비효율적 행정운영은 지속되었다. 2001년 대중의 압도적 지지를 배경으로 시작된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은 빈부격차와 지역격차가 확대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후 일본에서 취해진 위기 타개의 노력은 정권교체이다. 2009년 민주당은 ‘콘크리트에서 사람으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면서 대담한 정책변경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세금납비 근절, 자녀 양육과 교육지원, 연금 일원화와 최저연금제 시행, 지역주권, 고용창출 등을 매니페스트로 제시하였다. 기존 집권 세력에 대한 대중적 불만에 힘입어 민주당은 480석 가운데 308석을 차지하면서 자민당에 압승하였다. 2009년 총선거에서 유권자가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정권교체를 통해 일본 사회의 쇠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였다. 하지만, 2012년 8월 현재 까지 민주당 집권으로 인한 사회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일본의 경제회복은 더욱 기대하기 어려워진 가운데, 2009년 민주당이 간판으로 내 세웠던 아동수당 및 농가호별



소득보장, 고속도로 무료화 등이 모두 철회되었다. 2011년 11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선거에 행사한 한 표가 현실정치에 반영되지 않는다' 라고 응답한 사람이 81%로서 민주당 집권이전인 2008년 2월 67%보다 증가하였으며, 민주당에 의한 정치주도의 정책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도 81%에 이르고 있다(〈読売新聞〉 2011/11/24). 2012년 7월 NHK방송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내각지지율이 19%, 민주당 지지율이 19%이지만, 자민당 지지율 역시 20%로서 낮다. 이 조사결과는 불만은 존재하지만, 대안이 부재한 진퇴양란의 일본의 현 상황을 대변해 준다.

정치제도 개혁, 정권 교체를 통해 정체된 일본의 경제 회복, 정치적 효율성 확보가 시도되었지만, 여전히 일본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하시모토의 정책브레인 사카이야(堺屋太一)는 제도변화, 정권변화에도 해결되지 않는 현재 일본의 위기를 도쿠가와 막기 외국함대에 대한 패전,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이후의 제 3의 패전으로 일컬으며, 새로운 체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기로 표현한다(橋下·堺屋 2011, 20)

일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기 위해 현재 일본에서는 새로운 리더십의 등장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일본의 강한 정치적 리더십의 발현에 걸림돌로 지적되었던 당내 파벌정치, 여당심사제, 정책과정에서의 관료의 영향력 등이 1994년 정치개혁 이후 점차 약화되면서, 수상의 정치적 영향력 발휘를 위한 제도적 조건은 확립되어 가고 있다(竹中 2006). 하지만, 개혁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상황을 타개하는 리더는 좀처럼 등장하지 않은 채 1990년부터 2012년 현재까지 일본의 수상은 모두 15명이 교체되었다.

2. 오사카의 쇠퇴와 일본 지역 정치구조의 특징

최근 20년간 경제, 사회, 치안 등 제 분야에서 오사카는 급격히 쇠퇴되고 있으며, 도쿄와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인구총수 면에서 볼 때, 1990년 도쿄도의 인구는 오사카부 인구의 1.36배였으나, 2010년에는 1.48배로 차이가 확대되었다. 1인당 연간 소득에서도 양 지역의 격차는 확대되고 있다. 오사카 부민의 1인당 연간소득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1990년 기준 도쿄도민의 1인당 연간 평균소득은 오사카부민의 1.35배였으나, 2005년에는 1.54배가 되었다⁶. 뿐만 아니라, 오사카 지역의 사회생활 지표 역시 매우 열악하다. 오사카는 2009년 기준 범죄 발생률, 강도 발생률, 날치기 발생률, 쓰레기 배출량, 홈리스 수, 완전실업률, 아동 학대, 부등교 학생수, 생활보호 수급자 수, 이혼율 등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초·중등학생 학력은 전국 최하위이다(Sakaiya 2012).

오사카 사람들에게는 오사카의 발전이 일본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지난 400년간 도쿄에 주도권을 빼앗긴 데 대한 반감이 함께 존재한다. 오사카는 본래 도요토미가의 성 밑 마을(城下町)로서 발전하였으나, 도쿠가와 막부가 1615년 여름전쟁(大阪 夏の陣)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본격적으로 도쿠가와 막부의 지배하에 들게 되었다. 우에야마(上山信一)는 타 지역에 비해 전국 레벨의 정치가가 오사카에서 배출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일찍이 도요토미가를 견제한 도쿠가와 막부의 오사카지역 천령화와 그로 인한 자치의식 저하로 설명하고 있다(上山 2010, 92-93).

오사카인들은 역사적으로 일본의 발전이 오사카를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메이지 유신 이후 오사카에는 전기, 기계, 중화학 공업이 고르게 발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다이하츠, 다이소, 다이벌, 다이킨 등의 대기업이 오사카를 중심으로 설립되었다.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관동지방의 기업과 인재가 관서 지방으로 몰리게 되면서 1930년대 오사카는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집중된 지역이 되었다. 1945년 패전 후 오사카는 폐허가 되었지만, 섬유공업, 조선, 건설뿐 아니라 파나소닉, 샤프, 산요 등의 가전 산업, 이토츠키 등의 상사가 다시금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전했다. 1980년 한 조사에 따르면, 전후 새로 등장한 산업 70여종 가운데 56개가 오사카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었다(橋下·堺屋 2011, 26). 하지만, 1990년대 이후 오사카의 경제지표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사회, 치안 면에서도 전국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1990년



대 이후 오사카의 회복을 도모하는 개혁은 지속되었다. 1995년 취임한 요코야마 노크(横山 ノック)지사는 재정비상상태를 선포하고, 긴축재정을 실시하였지만, 효과는 미진하였다. 2000년부터 8년간 부 지사였던 오오타 후사에(太田房江) 역시 공장유치, 치안개선, 시설관리 등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지만 실패하였고,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감채기금을 사용하였다. 감채기금은 지방채 변제를 충당하기 위한 적립기금인데, 감채기금의 사용규모가 2001년 500억 엔에서 2008년 1000억 엔에 이르렀다.

한편,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지방자치체 단체장 선거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무당파 단체장의 증가이다. 1994년 소선거구제 도입효과로 국정선거에서는 자민, 민주 양대 정당제가 구축되었으며, 2009년에는 역사적인 정권교대도 이루어졌지만, 지역정치에서 기성정당의 존재감은 약화되고 있다. 정당에 소속되거나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무소속 단체장의 수는 1999년 33.3%였으나 200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어섰으며(53.7%), 2007년에는 전체의 55.2%를 차지하였다(〈朝日新聞〉 2007/04/24).

2008년 하시모토가 부각되는 배경으로서 일본의 정치, 오사카 지역의 구조적 특징을 개관해 보았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경제 침체, 정치적 효율성 둔화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기성정당 및 내각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있다. 오사카 지역은 일본의 경제를 이끌어왔다는 자부심과는 별개로 현실은 재정 파탄 상태이며,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었다. 1990년대 정치개혁 이후, 국정레벨에서 수상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정비는 갖추어지고 있지만, 정당내 파벌 및 중참의원의 네지레(ねじれ)⁷ 상황에 대한 지속적 조율이 필요하다. 이에 비해 지역 정치는 권한 면에서 단체장 우위의 이원대표제의 특징을 가지고, 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권력이 보장된다. 단체장은 대중과의 소통을 통해 직접적으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일본의 위기, 오사카의 위기, 탈 기성정당의 지역정치 속에서, 대중의 지지 확보에 유리한 지역 정치제도의 이점을 발휘하면서, 하시모토는 정치권에 등장하고 있다.

3. 신자유주의적 아이디어의 흐름과 오사카 도구상

198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전세계 경제이념의 주류로 부상했다. 신자유주의는 일본에서도 1980년대 이후 일본정치의 아젠다를 형성하였다. 그 배경에는 석유위기 등의 국제 환경적 요인과 고령화 등에서 비롯된 복지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개혁의 논리로 신자유주의가 주목 받게 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1990년대 이후 하시모토의 행정개혁, 2001년 고이즈미의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작은 정부론은 빠르게 외연을 확대하였다. 중앙과 지방간의 관계에서 신자유주의는 지방분권 논의로 연결되었다. 특히, 1970년대 이래 국토 균형발전을 목표로 공공사업을 통하여 지방에 막대한 재정이 유입되었지만, 지역은 자생력을 갖지 못하고, 재정적자가 확대되었다는 인식의 팽배는 구조개혁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 국토균형발전 정책의 폐해와 그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1993년에는 지방분권 추진에 대한 결의가 채택되었으며, 2000년에는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고이즈미는 대도시 중시정책을 천명하면서 대도시권 규제를 완화하였고, 본격적으로 도주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도주제는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가 1996년 제시한 지역국가론에서 비롯되었다. 오마에의 지역국가론은 전통적인 국민 국가가 경제의 산업화, 근대화에는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 사회주의권이 붕괴하고, 글로벌리제이션으로 기존의 사회, 경제구조가 변화된 이후에는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오마에는 오직 소수의 산업과 그에 연계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오마에는 세계경제에 참여하는데 필수적인 통신과 수송, 서비스의 인프라로 하나의 경제적 단일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규모, 즉 인구 500만에서 2000만 명의 도시를 지역의 성립요건으로 제안하고 있다(오마에 1996, 145-146). 2001년 일본총리직속 자문기관인 제27차 지방제도조사회



는 도주제 도입을 정식으로 공론화하였다. 도주제는 처음에는 지방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거론되었으나 2006년 제28차 지방제도조사회가 총리에게 제출한 답신에는 시대에 대응하는 새로운 국가형태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즉, 도주제는 도도부현을 합병시켜 광역적 자치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 양 정부를 재구축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역으로 권한의 이양을 동반한다. 현재의 도도부현의 권한 대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시키고 광역사무로서 남겨진 사무는 도주사무로 이양된다. 자민당 정권 하에서 정치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도주제는 2009년 일본의 정권교체 이후에는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이다. 2009년 3월 집권당인 자민, 공명 양당이 내각회의에서 도주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해 검토기관을 내각에 두기로 결정하였으나, 2009년 8월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되면서 논의가 중단되었다.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수상은 2009년 11월 지역주권전략회의를 내각에 설치하고, 도주제 기본법을 대신하여 지방정부법의 제정을 추진하였으나 간나오토(菅直人) 수상 취임 후 민주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패함으로써 지방정치체제 개편은 추진력을 잃고 있다. 한편, 하시모토가 부지사에 취임함과 동시에 재정자문으로 등장한 우에야마 신이치(上山信一)는 맥켄지 앤드 컴퍼니 출신이다. 따라서 맥켄지의 대표였던 오마에 겐이치(大前研一)의 지역국가론에 큰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하시모토의 대표적 정책인 오사카도 구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III. 하시모토의 정치구상과 정책대응

정치 기업가는 정치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필요에 대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지를 동원하고, 리더의 지위를 확보한다. 일본의 경제적 위기감 고조와, 정치적 효능감 저하, 오사카의 재정위기와 도쿄와의 격차확대라는 구조적 배경 하에서 하시모토가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는 정책과 아이디어는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오사카도를 실현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중심의 국가시스템으로 전환을 도모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치주도의 정책결정시스템을 확립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경쟁중심의 교육개혁을 통해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다.

1. 지방발신: “오사카로부터 일본을 바꾼다”

하시모토는 종래의 공무원 중심의 행정 운영방식과는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오사카를 운영하고 있다. 오사카부시통합본부(大阪府市統合本部)를 설치하고, 특별고문 및 참여로 55명의 외부전문가를 기용하였다. 이들은 하시모토의 정책자문집단으로서 전 경제기획청 장관인 사카이야 타이이치(堺屋太一), 우에야마 신이치(上山信一) 게이오대 교수, 개혁파 단체장이었던 전 요코하마 시장 나카타 히로시(中田宏), 전 스기나미구 구장 야마다 히로시(山田宏), 이다 테츠야(飯田哲也) NPO법인 환경에너지 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주된 정책구상은 오사카도의 실현이다.

오사카도 구상은 오사카부와 오사카시, 사카이시(堺市) 등 오사카 지역 지자체를 통합하여 도쿄도와 유사하게 1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특별자치구로 재편하여 이들이 주민서비스를 담당하고, 광역정부는 경제대책, 고용대책, 인프라 정비 등 지역 성장과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오사카도를 통해 오사카 지역 분권을 강화하고, 지역의 재생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우에야마를 비롯한 하시모토와 그의 정책자문그룹은 오사카도 구상을 제시하면서, 일본과 같은 성숙한 사회에서 나가타초, 가스미가세키 중심의 획일적인 발전전략을 도모하는 것은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며, 일본 정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 지역에 일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오사카도 내의 기초자치체인 구장(區長)



을 공선제로 선출하여, 주민에 의한 의사결정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시모토와 그의 정책집단들은 왜 도주제와 맞물린 오사카도 구상이 오사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이들은 메이지 유신의 조슈(長州)번의 역할을 통해 그 당위성을 구하고 있다. 이들은 봉건적 신분제도 철폐와 폐번치현이라는 시스템 개혁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이 성공했다고 본다. 그런데 이 개혁은 일시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개혁성향이 강했던 조슈번이 선도적으로 무사신분 철폐, 기병대 설립 등에 성공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파급됨으로써 가능했다고 주장한다. 즉, 일본 전체의 변화를 위해서는 선도적 지역의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며, 그 예가 오사카도 구상이라는 것이다(橋下 堺屋 2011, 230-239).

하시모토는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를 통해서 오사카도 구상을 추진하고자 한다. 하시모토는 2008년 부지사 당선 당시 자민당, 공명당의 추천을 받았지만, 특정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았다. 2009년 4월 오사카 부청사 이전문제를 둘러싸고, 부의회와 하시모토의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부의회 자민당 소속 의원 중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등 6명이 탈당하여 '자민당 유신의회'를 결성하였고, 2009년 5월에는 5명의 부의원이 추가로 자민당을 탈퇴하여 '자민당 로컬파티'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하시모토를 지지하는 자민당 의원그룹이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2010년 4월 오사카 유신회가 결성되었다. 오사카 유신회가 결성된 것은 중앙정치에서 2009년 8월 자민당이 총선거에서 정권을 상실하였던 시점이며, 하시모토가 압도적인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안으로 등장한 시기였다.

창당이래 하시모토가 당대표를 맡고, 마쓰이가 간사장을 맡아 운영하고 있는 오사카 유신회는 2010년 4월 창당 당시에는 22명의 부의원이 참가하였으나, 2011년 4월 통일지방선거에서 오사카 부의회 전체 109석중 57석을 차지해 다수당이 되었고, 오사카 시의회에서는 86석중 33석을 차지, 최대 회파가 되었다(〈朝日新聞〉 2010/04/02). 일본 정당법에 따르면 중의원 혹은 참의원 선거에서 블록 정수의 20%이상의 의원을 배출할 경우 정당으로 인정한다. 중의원 킨키 지역 비례대표 블록 정수는 29석이므로, 오사카유신회는 중의원에서 6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경우, 국정 정당으로서 인정받고, 정당조성금을 배분 받을 수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지역정당에 머물고 있었다. 2012년 9월 하시모토는 7명의 국회의원을 확보하고, 오사카 유신회를 모체로 하는 전국정당 일본 유신회(日本維新の会)를 정식 발족하였다(〈朝日新聞〉 2012/09/29).

오사카 지역에서 지역정당으로서 오사카 유신회의 영향력은 기성정당을 능가하였다. 2011년 11월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장 동시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 대표 하시모토는 본인의 대표적인 개혁구상인 오사카도구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히라마츠 쿠니오(平松邦夫)시장에 대항하여 오사카부 지사에서 탈퇴하고, 오사카시 시장에 입후보하였다. 오사카 부지사에는 오사카유신회 마쓰이가 입후보하였다. 결과는 상대 후보가 모두 자민당,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에서 오사카유신회의 하시모토와 마쓰이가 압승을 거두었다. 선거과정에서 자민, 민주 양당이 모두 상대후보 지지를 표시하자, 하시모토는 자민, 민주 양당과 대결할 것임을 밝히고, 자신의 오사카도 구상이 국회에서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 오사카 유신회가 국정에 진출할 것임을 밝혔다(〈朝日新聞〉 2011/11/28). 오사카도 구상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법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실현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사카 유신회는 2012년 2월 차기 중의원 선거를 위한 정책집 '선중팔책' 발표했다. 선중팔책은 통치기구의 재구조, 행정재개혁, 교육개혁, 공무원제도개혁,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제정책 및 세제개혁, 외교, 헌법개정 등 8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안에 도주제 도입, 수상공선제 도입, 참의원제도 폐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오사카 유신회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300명의 오사카 유신회 출신 후보를 옹립하고, 이 가운데 200명을 당선시킨다는 목표를 밝히고, 정치인 양성소인 오사카 유신숙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3월 시작된 유신숙에는 현역의원 등을 포함하여 2천명이 몰려 수강하였으며, 이 가운데 900명을 2차로



선발하여 중의원 선거 대비 후보자를 양성하였다(〈朝日新聞〉 2012/06/12).

오사카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유신회의 국정선거에서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차기 중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투표정당을 묻는 2012년 9월 요미우리 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민당 31%, 민주당 16%, 유신회 14%로서 3위이지만, 긴키(近畿),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큐슈(九州)지역에서는 자민당에 이은 2위이다. 특히, 긴키 지역에서의 유신회에 대한 지지는 27%로서 29%인 자민당에 거의 육박하고 있다(〈読売新聞〉 2012/09/18). 중의원 선거에서 긴키 지역에 부여된 의석수는 소선거구 48석, 비례대표 29석으로 모두 77석이다.⁸ 오사카 유신회가 긴키 지역에서 4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기성정당인 민주당 혹은 자민당이 중의원에서 다수당이 되더라도 유신회와의 연립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내각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내각지지율이 정당지지를 선도하는 상황에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하시모토가 수상이 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하시모토가 주장하고 있는 오사카도 구상을 비롯한 일본의 시스템변환으로 직결될 수도 있다.

2. 결정 가능한 민주주의: “행정의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정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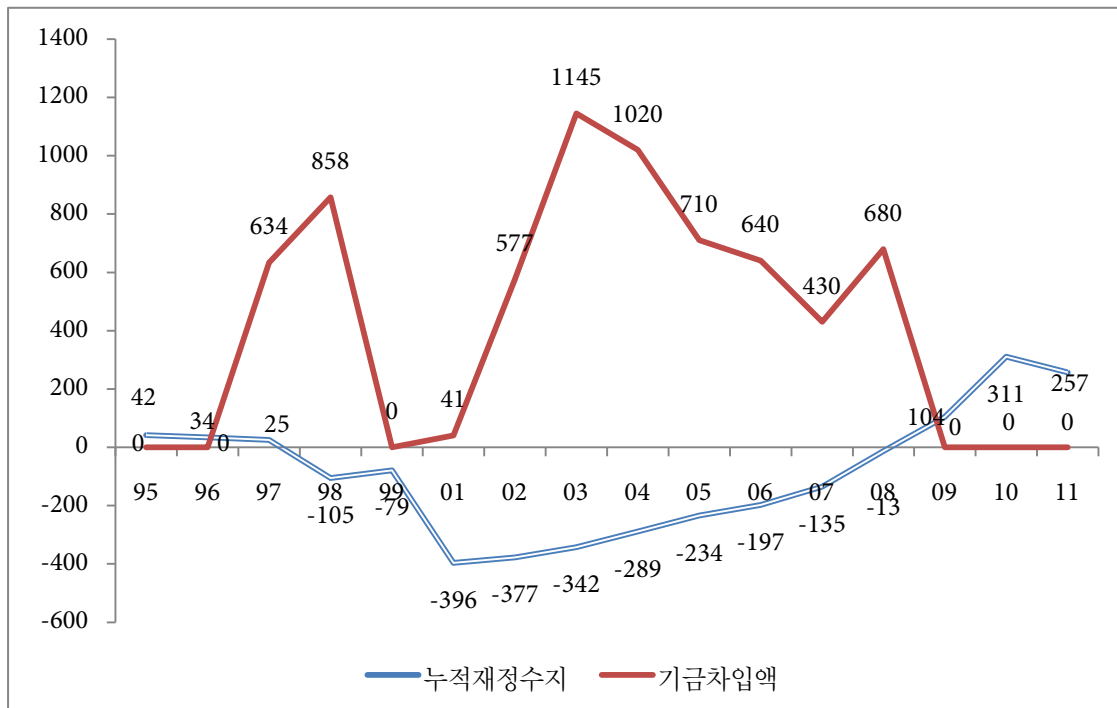
부지사 출마 이래 지속적으로 하시모토의 매니페스토에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행정 매니지먼트’와 공무원제도 개혁이다. 하시모토와 그의 정책자문 그룹은 메이지유신의 성공은 폐번치현과 판적봉환(版籍奉還) 즉 신분제도 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진 후, 교육제도 개혁 등이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이들이 제시하는 21세기의 판적 봉환이 공무원제도 개혁이다. 이들은 오사카도 구상에 대해 기존 시스템에서 신분이 보장되었던 국가, 광역자치체, 기초자치체의 관료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오사카도 구상은 공무원제도 개혁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橋下・堺屋 2011, 230-239). 하시모토는 행정조직을 개혁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보고, 정치가는 선거를 통해 민의를 확보한 만큼 행정조직의 개혁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무원은 정치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産経新聞社 2012, 108-109). 이러한 개혁 아이디어와 논리로 하시모토는 부지사 취임 이후에는 부직원과 시장취임 이후에는 시직원 노동조합과 대치하고 있다. 하시모토의 공무원 제도개혁은 재정개혁, 직원기본조례 책정 및 공무원의 정치활동 규제 등을 통해 진행되고 있다.

첫째, 하시모토는 2008년 부지사 취임 직후 오사카부의 재정비상상태를 선언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오사카부의 재정은 1990년대 이후 크게 악화되었는데, 오사카부는 부족한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감채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이를 해결해 왔다.



[그림 1] 오사카부 일반회계 누적 재정추이와 기금차입액 추이

(단위: 억엔)



출처: 森 (2011, 95)

하시모토는 부지사 취임 후, 감채 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중지하고, 수입 범위내 예산을 책정한다는 골자의 재정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시정촌 시설정비, 사학조성 등의 일반시책 경비삭감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주목 받았던 것이 공무원의 월급 및 퇴직금 등 인건비 삭감이다. 하시모토는 오사카부지사 당선 취임 기자회견에서 오사카 부는 파산상태와 마찬가지로 부직원은 파산한 회사의 직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건비 삭감을 예고하였다. 하시모토 재임기간인 2008년과 2010년 사이 인건비 삭감은 484억엔 규모로 이루어졌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시책경비의 삭감규모인 359억 엔보다도 큰 규모이다(森 2012, 96). 그 결과 하시모토 재임기간인 2008년에서 2010년 사이 오사카부의 감채 기금 차입은 중지되었고, 재정수지는 흑자로 전환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그림 1 참조).

둘째, 하시모토는 2011년 시장선거 매니페스토를 통해 직원기본조례를 만들고, 이에 근거하여 직원 평가를 시행하여, 부적격한 직원은 감축이 가능한 공무원제도 개혁안을 밝혔다. 이는 메이지 시대 이후 지속되어 온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 안은 2011년 4월 오사카시의회에 제출되었으나, 오사카 유신회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여 통과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하시모토는 시 직원의 정치활동 및 노조활동을 강하게 규제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오사카 지역정치의 특수성과도 연결되는 내용이다. 1960년대 이래 오사카 시직원의 90%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들은 역대 시장선거를 좌우할 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시모토는 이것이 시장의 정책적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본다. 2011년 시장선거에서도 노조가 상대후보인 히라마츠 전 시장을 지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시모토가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근거는 정치가는 민의를 선거를 통해 평가 받기 때문에 민의의 결과를 공무원은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하시모토의 공무원 제도 개혁의 본질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정치주도' 개혁론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시모토의 정치주도의 개혁론은 2010년 6월 오사카 부의회에서 성립된 국기, 국가조례안의 성립에



대한 하시모토의 해석을 통해서도 나타난다. 국기, 국가조례안은 오사카부의 공립학교에서 상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며, 국가 기립제창 등을 규정한 것이다.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인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한 조례의 성립 및 이를 거부한 교원 34명에 대한 경고 처분은 하시모토의 보수적 이념성향의 좌표로서 간주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히노마루, 기미가요에 대한 하시모토의 접근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규율의 문제로 모아지고 있다. 즉, 히노마루 게양, 기미가요의 기립 제창은 유권자로부터 신의를 받은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인 교육위원회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야 하고, 이를 어긴 교원에 대한 처벌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헌법개정 문제 역시 하시모토에게는 이념의 문제라기 보다는 ‘정치주도’의 개혁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시모토는 기본적으로 헌법 개정에 찬성한다. 그 이유는 정치가가 결정 가능한 민주주의를 추진하기 위해 수상공선제, 참의원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시모토는 헌법개정 위한 국민투표 회부 요건인 중참의원 총의원 2/3이상의 찬성요건을 1/2로 낮추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헌법 9조 문제에 대해 하시모토는 헌법 9조에서 비롯된 자기희생 없는 국가안보 획득의 역사가 동일본대지진 이후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각 지자체의 폐기물을 수령거부의 이기심으로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적으로 헌법의 개정여부를 논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朝日新聞〉 2012/03/09).

하시모토가 실시한 국기게양법, 국가제창법 등의 내용과 헌법개정 찬성입장 표명 등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하시모토의 보수적 이념적 좌표를 나타내었지만, 그 근본의도는 정치주도의 통치기구 재편이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2012년 9월 현재 하시모토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고노담화의 부정, 한일간 독도 공동관리 등 그의 보수적 이념지향을 한층 강화하여 내세우고 있다. 같은 시기 국정정당으로서 일본유신회의 발족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지역정당의 대표로서 외교와 안보인식이 부재하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일본 전체의 국익에 대한 책임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하시모토의 정치구상은 이념적 지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정치주도의 개혁을 위해 이념적 지향을 활용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하시모토가 다른 이념적 지향을 가지는 정치세력과 연합을 통해 통치기구를 개편하게 된다면, 하시모토의 이념적 지향은 더욱 보수적 성격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약화될 수도 있다. 2012년 9월 현재, 차기 정권에서 하시모토와 연립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 자민당, 민주당의 당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이다. 두 사람 모두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고, 헌법개정과 영토확장을 통해 강한 일본을 만들고자 하고 있는 만큼 하시모토의 보수적 이념지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3. 경쟁중시 성장정책: 교육개혁

하시모토가 그의 정책구상을 통해 강조하고 있는 또 다른 키워드는 ‘경쟁’이다. 2008년 하시모토가 제시한 오사카의 장래 도시상은 환경, 신에너지 등 선단 기술산업의 집적에 의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중개도시이다. 하시모토는 이를 위해 고도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타 지역에 비해 최악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오사카의 문제로는 범죄 발생률, 실업률, 생활보호수급자 비율 등이다. 하시모토는 그 근본문제가 교육에 있다고 보고, 교육개혁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 3월 오사카 부의회는 오사카부 교육기본조례를 성립시켰다. 이 법안은 하시모토 재임시기인 2011년 9월 제출된 것인데, 그 전문에서 하시모토는 ‘오사카부의 교육은 세계의 동향을 주목하면서 경쟁력이 높은 인재의 육성을 우선시한다’고 밝히고 있다. 구체적으로 하시모토는 고교의 학구제를 폐지하고, 소중학교의 학교선택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3년 연속 지원자가 미달인 부립 학교는 정리대상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학생이 학교를 선택하는 기본정보로서 전국학력테스트 결과를 시정촌별로 공포할 것을 선언했다.



자민당 정권시기부터 문부성은 학력테스트 결과의 공표는 학교 현장에 과도한 경쟁을 준다는 이유로 공표를 금지해 왔었다. 또한, 교육기본조례는 교장 공모제, 보호자의 학교운영참가, 교원의 상대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하시모토는 교육서비스의 사용자인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를 선택하게 됨으로써 학교 간 경쟁이 심화되고, 이로써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임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교육에서의 빈부의 격차를 완화 방안으로 하시모토는 부모의 연간 수입이 610만엔 이하인 학생의 경우, 사립학교의 수업료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이로써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경쟁을 강화시키고 있다. 학교 선택제와 사립학교 수업료 무상화 확대 실시 이후, 사립학교 지원학생이 증가하여 공립학교의 30%가 정원이 미달되었다.

지방분권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이념이 공존한다.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초점을 맞춘 시장주의적 분권으로서 분권화된 환경은 각 지방자체단체를 자연스럽게 경쟁으로 유도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주적 분권으로 주민자치와 지역의 자율성 등 민주주의적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민주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하시모토의 오사카도 구상과 경쟁중심의 교육개혁은 기본적으로 중앙과 지방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는 신자유주의적 분권에 치중되어 있으며, 도주제 구상과 정합적이다. 구장 공선제 등을 가미함으로써 민주적 분권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시모토의 지방분권구상은 주민자치와 지역의 자율성, 주민의 민주적 가치, 참여유도를 중시하는 아래로부터의 분권이 아니라, 성장을 중시하는 위로부터의 분권이다.

IV. 하시모토의 지지확보 전략

정치 기업가로서 하시모토는 일본의 위기, 오사카의 위기 가운데 일본 정치저류의 신자유주의 아이디어의 흐름, 정치주도의 개혁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사카도 구상, 공무원제도 개혁, 교육개혁의 상품을 제시하였다. 여기서는 이러한 정책상품을 가지고 하시모토가 어떻게 새로운 지지를 동원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를 검토한다.

1. 대중과의 적극적 의사소통

정치가가 새로운 지지를 조직함에 있어, 정치가가 제시한 담론과 아이디어의 역할은 중요하다. 특히, 기존의 정치제도가 유동적인 위기 상황에서 담론이나 아이디어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익에 대한 사고를 형성시키기도 하고, 이로써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담론은 정치가, 실무자 등의 정치적 행위자가 상호간에 주고받는 조정적 담론(coordination discourse)과 정치적 행위자가 시민이나 유권자를 대상으로 대중매체를 통하여 펼치는 커뮤니케이션 담론(communicative discourse)으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전자는 정치적 행위자 사이에 인식을 공유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데 반해 후자는 대중매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권자를 움직이면서, 사람들의 일상에 침투하기 위한 담론이다 (Shumidt 2002, 232-233).

일본의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서 볼 때, 의원내각제를 취하고, 연립정권이 주를 이루는 중앙정치의 경우, 조정형 담론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데 반해, 단체장을 직접선거에 의해서 뽑는 지방 정치의 경우 커뮤니케이션 담론의 비중이 커질 수 있다. 특히, 하시모토의 경우 기성 정당 출신이 아니며, 재계, 노조 등 특정 지지기반이 없다. 따라서 하시모토의 담론의 발신 대상은 일반 대중을 향하며, 적극적인 대중 접촉 전략이 취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첫째, 하시모토의 적극적인 대중적 정보제공은 정례 기



자회견 시간, 행정 운영방식 등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오사카 부지사 시절 하시모토의 주1회 정례 기자회견 시간은 평균 1시간 17분이며, 최장 1시간 45분에 이른다. 하시모토와 경합하였던 히라마츠(平松邦夫) 전 오사카 시장의 경우 주간 기자회견 시간은 평균 43분이었다. 하시모토 못지않은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 도쿄도지사가의 기자회견 시간이 17분에 불과함을 고려해 볼 때, 하시모토의 대중적 발신력은 압도적이다(〈読売新聞〉 2011/02/06). 하시모토의 정보제공은 행정의 투명성과도 연결된다. 부지사 취임 이후 하시모토는 적극적인 행정정보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산 편성 과정과 공공 지출정보 등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 공금을 지출할 경우, 익일 웹사이트에 당사자와 지출 내용 등이 공개되고 있다. 전국 시민옴브즈만 연합회의는 매년 전국 지자체의 정보공개 순위를 발표하고 있는데, 오사카부는 2008년 28위였으나, 하시모토 취임 이후 2010년 1위를 차지하였다. 하시모토의 적극적 정보공개는 약한 조직기반을 보완하는 기능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하시모토의 1100억엔 세출삭감을 골자로 하는 오사카부 개혁프로젝트는 많은 조직 내 반발을 초래하였다. 이에 하시모토는 2008년 4월부터 5월까지 하시모토와 부직원간의 세출삭감에 대한 논쟁을 그대로 뉴스에 내 보냈고, 부민의 압도적 지지 반응을 불러일으켜, 공무원 조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혁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둘째, 하시모토의 의사소통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루어진다. 하시모토는 신문 등 지면 인터뷰를 가급적 피하고, TV인터뷰와 트위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그 이유에 대해 하시모토는 신문인터뷰 등은 본인의 의사가 왜곡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하고 있다. 따라서 본인이 주도하는 정책을 발표할 때, 하시모토는 TV출현회수를 크게 증가시킨다. 하시모토는 2009년 중앙정부와 지방의 문제를 직할사업분담금 문제로 초점을 맞추면서, 요코하마의 나가타시장, 스기나미구의 야마다 구장등과 함께 개혁파 수장연합을 결성하고, 중앙정치에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려고 하였다. 하시모토는 와이드쇼 등을 통해 직할사업분담금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키고, 결국 민주당, 자민당, 공명당 등 기성정당 매니페스토에 국가 직할사업분담금 제도 폐지 항목을 삽입시켰다. 2009년 10월부터 2010년 3월 사이에는 오사카부, 오사카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총 43회 TV 프로그램에 출연하였는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인 히라마츠 전 시장은 연간 TV출연횟수가 3회 이하였다. 하시모토는 2012년 7월 기준 76만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하면서, 언론을 통해 밝히지 못했던 사실이나,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던 자신에 대한 평가 및 보도내용에 대해 극적으로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있다.

셋째, 하시모토의 커뮤니케이션형 담론은 강하고, 단순하다. TV 인터뷰에서 하시모토가 정책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은 대개 15초 내외이며, 트위터는 140자이내의 단문으로 구성된다. 하시모토의 독단적 언행은 파시즘과 하시모토를 결합해서 만든 하시즘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기도 하였다.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그의 프레이밍은 매우 간단명료하다. 하시모토가 잘 사용하는 용어는 ‘민의’, ‘선거로 뽑힌 대표’, ‘이중행정’, ‘신분보장 공무원’, ‘매니지먼트’, ‘리셋트’ 등이다. ‘민의’, ‘매니지먼트’의 배경에는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적 문제, 정치가 주도의 개혁의 당위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이중행정’, ‘신분보장 공무원’의 배경에는 오사카도 구상의 배경과 고용보장이 안 되는 일반회사원 및 비정규직에 대비되고 있는 공무원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는 강한 감염력을 가지는데, 하시모토를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러한 용어를 더욱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想田 2012, 130-139).

하시모토는 2012년 5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주의는 국민의 합의를 근간으로 하는 제도이지만, 이론, 논리적인 근거 등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는 것은 막대한 정치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정치가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대중과 현실적 문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강하고 명확한 언어로 프레이밍된 정보, 직접적 의사소통을 통한 대중적 관심 집중이 그가 구사하는 정치적 기술이다. 2012년 2월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시모토의 정치수법에 대해 67%의 오사카 부민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⁹



2. 보편적 지지층의 형성 프레이밍: 포용적 리더의 부각

2012년 2월 하시모토 시장 취임 이후 실시된 오사카 지역주민 대상 조사에서 하시모토의 대중적지지율은 70%가 넘는다(〈読売新聞〉 2012/03/06). 기성정당인 자민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12%, 17%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54%의 조사대상자들은 향후 중의원 선거에서 오사카 유신회가 의석을 차지하기를 희망한다(〈朝日新聞〉 2012/02/21). 그렇다면 하시모토의 지지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마츠타니(松谷満)가 2012년 1월 오사카부내 20세 이상 70세 이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하시모토는 다양한 사회적 속성을 가진 지지자를 고르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시모토에 대한 강한 지지를 나타내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의 분포를 보면 민주당 지지 53%, 자민당 지지 54%, 무당파 49%이다. 고용형태 및 직업별로는 관리직(67%), 정규직(60%)의 지지율이 높고, 비정규 무직의 비율(42%)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지만, 무직자 역시 약한 지지까지 포함하면 76%가 하시모토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松谷満 104-105). 하시모토가 보편적 지지층을 형성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의 탈이념적 성격과 새로운 세대를 포섭하는 전달수단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하시모토의 정책적 비전은 종래의 이념적 성격으로는 분류되기 어렵다. 국기, 국가관련법안, 헌법개정 논의, 경쟁 강조 등은 자민당 등 보수정당이 주장해 온 것과 일치하지만, 원자력 발전 반대, 저소득층 자녀의 사립학교 수업료 지원, 15세 이하 어린이의 통원의료비 무료화 등의 정책은 과거 혁신계 정당의 주장과 겹쳐진다. 하시모토의 탈이념적 정치적 입장은 국면에 따라 기성 정당과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 하시모토는 자민당의 정치가 발굴과정과 자민당의 지지를 배경으로 정치계에 입문하였으나, 2009년 중의원 선거에서는 지역분권을 기치로 민주당을 지지한 바 있다. 현재는 원자력 발전 재개문제, 증세 등의 현안에 대해 민주당 정권에 반발하고 있다.

둘째, 트위터 등의 새로운 수단의 활용은 새로운 세대를 정치에 포섭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2년 2월 하시모토의 정치적 수법에 대해 6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1]은 연령별 하시모토 정치적 수법에 대한 지지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연령별 하시모토의 정치수법 평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긍정적	52	72	48	51	51	42
부정적	28	10	21	22	31	34

출처: 〈朝日新聞〉 2012/02/12, 필자 재구성

(단위 %)

[표 1]에 따르면, 전 세대 고르게 하시모토의 정치적 수법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특히 30대의 지지가 두드러진다. 현재 일본의 30대는 1973년부터 1980년 사이의 일본의 제2차 베이비붐세대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와 일치한다. 이들의 정치참여율은 단카이 세대에 비해 현저히 낮다. 베이비 붐세대인 70대 전반의 2009년 중의원 총선거 참여율은 74.5%인데 비해 30대의 총선거 참여율은 46%에 머물렀다(総務省 2010). 단카이 세대가 고도성장기 대도시권으로 이동, 정착한 후 태어난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주로 대도시 인근 신흥주택지에서 자라난 세대이다. 단카이 세대가 학생운동, 반전운동 등으로 조직적인 활동에 익숙한 세대였던 것에 비해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정치에 무관심층은 아니지만, 대인관계를 통한 조직활동 보다는 컴퓨터 등을 활용하여 자기류의 발신에 익숙한 세대이다(三浦 2007, 8). 최근 단카이 주



니어 세대의 하류화 현상에 대한 사회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하시모토에 대한 단카이 주니어 세대의 높은 평가는 세대적 위기감에 비해 세대의 요구를 좀처럼 반영할 수 없었던 기존 정치권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볼 수 있다. 하시모토는 새로운 소통의 수단으로 정치적 지지층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하시모토의 지지층은 탈세대적이다. 과거 일본의 고도성장을 기억하고, 현재의 일본의 위기를 인식하는 단카이 세대를 향해서는 성장을 위한 구조개혁의 이슈를 강조함으로써 지지를 확보하고, 단카이 주니어 세대는 새로운 정치적 수단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함으로써 공감을 얻고 있다.

V. 결론: 정치 기업가 하시모토 리더십의 전망

일본의 정치 리더로서 하시모토의 개인적 배경은 이질적이다. 정치가계의 배경도 없고, 관료출신도 아니다. 나아가 오사카 지역의 지지를 배경으로 일본 전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기존 일본의 정치 리더와는 다른 하시모토의 정치리더십을 정치적 기업가(political entrepreneur)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고자 하였다. 정치 기업가는 사회구조적 환경의 흐름을 파악하고, 구조적, 상황적 문제에 대한 처방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대중적 지지를 확보한다.

정치 리더로서 하시모토는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구조적 위기와 정치 주도의 개혁의 맥락에서 등장하였다. 구체적으로 하시모토의 등장은 첫째, 일본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고령화로 인한 사회구조의 활력저하, 중앙정치의 낮은 정치적 구심력과 신뢰저하를 배경으로 한다. 둘째, 역사적으로 도쿄와 더불어 양대 성장축을 형성하였던 오사카의 급속한 쇠퇴에 대한 위기의식과 개혁의 주도권을 확보함으로써 도쿄 일극 중심을 타개하려는 오사카 지역의 민심을 배경으로 한다. 일본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치개혁 방향 및 대중적 지지동원 방식에서 하시모토는 기존의 일본 정치리더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하시모토의 개혁은 중앙에서 지방으로가 아닌 지방에서 중앙으로의 방향성을 가진다. 하시모토는 성공적 개혁의 역사인 메이지 유신의 폐번치현과 판적봉환을 상기시키면서 오사카도구상과 정치주도의 공무원 제도개혁, 성장의 동력으로서의 교육개혁 등을 처방으로 내놓았다. 개혁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 하시모토는 지역정당 오사카 유신회를 모태로 하여 중앙정치로의 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탈세대적 대중소통방식을 통해 보편적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 역시 하시모토가 기존 정치리더와는 다른 특이적 요인이 된다.

정치 기업가로서 하시모토의 리더십을 평가할 때,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 하시모토의 정치적 수법에 대한 대중적 평가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2011년 11월 오사카 시장선거에 앞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사카도 구상에 대한 찬성의견이 37%, 반대가 27%였으나, 하시모토의 정치수법에 대해서는 54%가 지지하고, 2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朝日新聞〉 2011/11/22). 즉, 하시모토의 정책적 비전에 대한 대중적 동의보다는 강한 리더로서의 프레이밍, 대중적 소통강화가 더 큰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하시모토를 정치 기업가보다는 포퓰리스트로서 접근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모토를 정치 기업가의 시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유의미한 이유는 하시모토가 정치권에 등장한 이래 오사카도 구상, 정치주도의 정치개혁, 성장중시의 교육개혁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정치적 승부를 걸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 기업가로서 사카모토 료마는 세계 지도 가운데 존재하는 일본에 개국을 통한 부국강병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외국과의 국교, 육해군의 창설, 이원제 국회의 설치 등의 시스템 전환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에 비해 아직까지 하시모토 토루는 세계 속에서 어떤 일본이 되기 위한 개혁인가에



대한 비전 제시는 결여한 채 지방분권 개혁, 정치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치주도의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이념적 지향을 활용하고, 민의를 정치적 판단의 최종근거로 삼고 있는 하시모토이기 때문에, 하시모토가 어떠한 세력과 연대하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따라 하시모토의 세계 속의 일본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 시점에서 볼 때, 정치 리더로서의 하시모토의 장래는 유동적이다. 개혁적 비전을 제시하고, 사카모토 료마로 거듭날 수도 있고, 한정된 지역의 시각에서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려다 파멸한 토사근왕당의 다케치 한페이타(武市半平太)가 될 수도 있다. ■



주(註)

¹ 토사번(土佐藩)은 현재의 고치현(高知県)에 해당한다.

² 하시모토를 다룬 저작은 대부분 하시모토에 대한 연구서라기 보다는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하시모토의 정치적 입문과정, 정치적 구상, 하시모토의 발언 내용 등을 다루고 있다(産経新聞大阪社会部編 2012, 2009; 吉富 2011; 読売新聞大阪本社社会部編 2009). 연구논문으로는 마츠다(松田健次郎)가 하시모토의 기자회견 기록을 통해 하시모토의 정치가, 정당과의 관계 등을 분석하고 있다(松田 2010).

³ 정치학에서 다루는 포퓰리즘은 두 가지 역사적 기원을 가지는 데 첫째는 19세기말 미국의 인민당 결성에서 시작된 아래로부터의 운동적 개념이며, 두번째는 1930년대에서 1950년대 사이 라틴아메리카에서 등장한 개인적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 정치적 영웅이 선정적 슬로건 혹은 대중 영합적 정책을 이용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는 위로부터의 운동이다. 오오타케(大嶽秀夫)는 일본에서의 포퓰리즘은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며, 선정적 슬로건에 의한 적극적 동원이 아니라 대중의 의견에 동조한 기회주의, 대중영합주의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고 본다(大嶽 2003, 110-119).

⁴ 번즈(James MacGregor Burns)는 리더와 추종자사이의 관계를 통하여 리더십의 형태를 거래적 리더십(transactional leadership)과 변환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으로 구분하고 있다. 거래적 리더십은 이익의 중개를 통해 형성되는 리더십이며, 변환적 리더십은 지도자의 카리스마, 지적 자극 등으로 추종자를 일체화시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Burns 1978, 19-20).

⁵ 노먼(Frohlich Norman) 등은 정치 기업가를 조직되지 못한 일반 대중들에게 그들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그 대가로 일정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사람으로 정의한다(Norman 1971, 57). 이러한 맥락에서 최태욱은 일본의 대점법 개정과정을 통해 일본 유권자에게 공공재를 팔고 정치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는 자민당 지도부를 정치적 기업가로 보고 있다(최태욱 1998, 211).

⁶ 1990년 기준 도쿄도민의 인구는 11,856,000명, 오사카 부민은 8,473,000명이었다. 2010년 도쿄도 인구는 13,356,000명, 오사카부민은 8,865,000명이다. 1990년 기준 오사카 부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3,372,000엔, 2005년에는 2,998,000엔이었다. 도쿄도민의 1인당 평균소득은 1990년 4,555,000엔, 2005년 4,607,000엔으로 나타났다. 출처: “総務省統計”. [http:// www.e-stat.go.jp](http://www.e-stat.go.jp)(검색일: 2012. 07. 08).

⁷ 네지레(ねじ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으로 구성된 일본정치에서 중의원 과반을 확보한 여당이 참의원 에서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을 의미한다.

⁸ 구체적으로 효고현(兵庫県) 12석, 교토부(京都府) 6석, 오사카부(大阪府) 19석, 나라현(奈良県) 4석, 와카야마현(和歌山県) 3석, 시가현(滋賀県) 4석 등으로 소선거구 48석이다. 중의원 선거 긴키(近畿) 지역블록 29석이다.

⁹ 〈朝日新聞〉 2012年 2月 12日. 하시모토의 정치수법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9%였다.



참고문헌

- 김영수. 2006. “1990년대 일본형 시스템의 변화와 정치 리더십: 포퓰리즘적 정치 리더십 탄생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무당파를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 24: 81-134.
- 나지타 테츠오. 박영재 역. 1992. 《근대일본사: 정치항쟁과 지적 긴장》. 서울: 역민사.
- 오마에 겐이치. 박길부 역. 1996. 《국가의 종말》. 서울: 한국언론자료 간행회.
- 윤석상. 2011. “일본의 지방분권, 민주당 정권의 지역주권론과 지자체 개편.”〈국제지역연구〉. 15, 13: 199-226.
- 장달중. 2007.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변화: 비교적 시각에서 본 한국과 일본의 리더십.” 장달중, 핫토리다 미오 편. 《한일정치사회의 비교분석》. 서울: 아연출판부.
- 전영수. 2010. “일본의 신자유주의 도입 과정과 특징: 경제적 관점을 중심으로.”〈일본연구논총〉. 32: 1-34.
- 주정립. 2005. “포퓰리즘의 개념적 규정을 위한 시도.” 〈대한정치학회보〉. 13, 1: 245-270.
- 최태욱. 1998. “국제화시대의 공공정책 변화와 정치 기업가의 역할: 일본의 일례.” 〈국제정치논총〉. 38, 2: 197 - 218.
- Blondel, Jean. 1987. *Political Leadership*. London: SAGE Publications.
- Burns, James M 1978. *Leadership*. New York: Harper Perennial.
- Greenstein, Fred I. 1987. *Personality & Politics*. Princeton and Oxford: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eohane, Nannerl O. 2012. *Thinking about Leadership*. Princeton University Press. 심양섭, 이면우 역. 2012. 《성공하는 리더십의 조건》. 서울: 명인문화사.
- Kingdon, John W. 1984. *Agenda, Alternative and Public Policy*. Boston: Little Brown.
- Martin, Adams & Diana Thomas. 2011. “Two-tiered political entrepreneurship and the congressional committee system.” *Public Choice*. DoI.1007/s 11127-011-9855.
- Norman Frohlich, Joe Oppenheimer, Oran Young. 1971. *Political Leadership and Collective Good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amuels, Richard J. 2003. *Machiavelli's Children: Leaders and their Legacies in Italy and Japan*.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chmidt, Vivien A. 2000. *The Futures of European Capit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aichi, Sakaiya. 2012. “Hashimoto Reform Has a Particular Ability to save Japan.” *Japan Echo Web*. No. 10 February- March 2012.
- 大嶽秀夫. 2003. 《日本型ポピュリズム》. 東京: 中央公論新書
- 竹中治堅. 2006. 《首相支配-日本政治の変貌》. 東京: 中公新書.
- 三浦展. 2007. 《下流社会第2部》. 東京: 光文社新書.
- 山内昌之. 2008. 《政治家とリーダーシップ: ポピュリズムをこえて》. 東京: 岩波書店.
- 産経新聞大阪社会部編. 2009. 《橋下徹研究》. 東京: 産経新聞社.
- 読売新聞大阪本社社会部編. 2009. 《橋下主義: 自治体革命の道》. 東京: 梧桐書院.
- 上山信一. 2010. 《大阪維新: 橋下改革が日本をかえる》. 東京: 角川新書.
- 松田健次郎. 2010. “橋下徹府知事記者会見記録探索的分析.” *Theoretical and Applied Linguistics at Kobe Shoin*. 13:15-22.次郎
- 橋下徹・堺屋太一. 2011. 《体制維新大阪都》. 東京: 文春新書.



- 吉富有治. 2011. 《橋本徹は改革者か壊し屋か大阪都構想のゆくえ》. 東京: 中央公論新社.
- 出井康博. 2011. 《首相たちの革命: 河村たかし、竹原信一、橋下徹のしがけた戦争の実像》. 東京: 飛鳥新社.
- 松谷満. 2012. “誰か橋下を支持しているか.” 〈世界〉. 103-112.
- 産経新聞大阪社会部編. 2012. 《橋下語録》. 東京: 産経新聞社.
- 森裕之. 2012. “維新の会は大阪をどう改造しているか.” 〈世界〉. 94-102.
- 想田和弘. 2012. “言葉が支配するもの; 橋下支持の謎を追う.” 〈世界〉. 130-139.
- 〈正論〉 2012年 2月
- 〈創〉 2011年 12月
- 〈文芸春秋〉 2012年 1月
- 橋下徹: <http://www.hashimoto-toru.com/>
- 大阪維新の会: <http://oneosaka.jp/>
- 大阪市: <http://www.city.osaka.lg.jp/>



부록

[하시모토 토루(橋下徹) 연표]

1969년	6월	도쿄도 출생
1988년	3월	오사카부립 기타노(北野)고교 졸업
1994년	3월 11월	오사카부립 기타노(北野)고교 졸업 사법시험 합격
1997년	4월	변호사등록
1998년	4월	하시모토 종합법률사무소 개설
2001년	1월	아사히 방송 정보채널 정규출연. 코멘테이터 활동 개시
2008년	1월 2월 4월	오사카부지사선거 첫 당선 지사취임. 부(府)재정 비상사태선언 부 개혁방침 '오사카 유신 프로그램안' 발표
2009년	3월 6월 9월 10월 12월	부의회 오사카시 WTC로 도청사 이전 부결 나카다 요코하마 시장 등 수장연합(首長連合)결성 표명 사카이(境)시장 선거에 전 부하인 다케야마 아사미(竹山修身)승리 부의회에서 WTC구입 예산안 가결. 이전 조례안은 부결 정부 지역주권전략 회의 멤버로 취임
2010년	1월 4월 5월 7월 11월	정례기자회견에서 오사카도구상 표명 지역정당 오사카유신회(大阪維新の会) 발족 오사카 시의회 후쿠시마구 보결선 오사카유신 첫 후보자 옹립, 당선 오사카시 나마노구(生野)보결선 오사카유신 승리 사립학교 등 수업료 무상화 방침 발표
2011년	4월 10월 11월 12월	통일지방선거 오사카유신 부 의회 과반수 획득, 오사카시, 사카이시 양 의회 최대 회파 형성 스이타(吹田)시장선거에서 오사카 유신 공인 후보 당선 오사카부 지사사직 오사카부지사, 시장 동시선거 하시모토 토루,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유신회 승리 오사카 시장 취임 오사카도 구상의 제도설계, 이중행정 해소를 위한 오사카부와 오사카시의 최고 의사 결정기관 '부시통합본부' 발족
2012년	2월 3월 9월	오사카 유신회 차기 중의원 선거 공약 유실판책 발표 유신정치숙 개강 국정정당 일본유신의 회(日本維新の会) 설립



필자약력

박명희_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사업팀 박사후과정 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사) 지구촌나눔운동에서 근무하였다. 2009년 일본 게이오대학(慶應義塾大学) 방문연구원을 거쳐, 2011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논문명: “1990년대 이후 일본의 정치변동과 시민사회: 고령자복지 NPO의 애드보커시를 중심으로”)를 받았다. 연구 논문으로는 “일본 시민사회의 두 가지 인도주의(2010, 일본연구논총, 공저)”, “일본의 정당정치 변화와 NPO의 애드보커시(2011, 한국정치학회보)”, “일본의 고령자 복지 거버넌스와 NPO(2012, 일본연구논총)” 등이 있다.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지식 네트워크

- 동아시아연구원(EAI)은 미국 맥아더재단(MacArthur Foundation)의 ‘아시아안보이니셔티브’(Asia Security Initiative) 프로그램 핵심 연구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지원을 받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 및 정책 개발을 위해 2009년1월 아시아안보연구센터(소장: 전 재성 서울대)를 설립하였습니다.
- 본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안보센터의 연구 결과물로서 정책결정 및 학술연구, 각종 교육사업에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보고서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인용할 시에는 출처와 저자를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연구원 홈페이지 [EAI 출판]과 각 프로젝트 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해 주십시오.
김양규 아시아안보센터 연구원 Tel. 02 2277 1683 (내선 108) ygkim@eai.or.kr

